

제 12 장 세례요한

오늘은 광야에서 외쳤던 자, 곧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 봅시다. 신약의 네 복음서들은 모두 세례요한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들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 3:1-12; 막 1:2-8; 눅 3:1-20; 요 1:6-8, 19-36; 3:23-30).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 10:37; 13:24이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위치는 예수님의 "전령사" (herald, 왕의 오심을 미리 와서 알려 주는 자)로서 그가 행한 역할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옷모양과 먹는 음식까지도 일치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 4:5),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 11:13; 막 9:9-13).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1-5)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 11:13-14)

신약 외의 요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유일한 자료는 요시푸스의 고대사 (Antiquities)에 있는 글입니다. 요시푸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장인 아레타스 4세에 의해 패배당하는 것을 기술하면서, 이는 세례요한을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요한은 제사장 부부가 그들의 노년에 낳은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해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눅 1:80). 요한이 거주했던 광야는 쿨란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한과 쿨란공동체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질문합니다. 요한의 사역과 쿨란공동체의 규율과 체제를 비교해 보면, 사역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동떨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쿨란공동체는 “땅의 사람들”과 상종을 금하여,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과는 접촉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메시야께서 당도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의 사역은 특별히 예언자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에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눅 3:2). 쿤란과 에센파처럼 광야를 사역지로 택했으나, 요한이 택한 곳은 유대 광야의 가장 변화한 사해 북쪽 요단의 교차점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수세기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를 그의 설교에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그의 말씀을 듣고자 요단 계곡으로 무리지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가르치는 새로운 길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11:32). 요한의 설교는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과, 그 심판은 "오실 자"에 의해서 집행될 것을 알린 것입니다. 요한은 오실 자, 곧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오실 자는 다니엘에서의 "인자 같은 이"(단 7:13)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요한은 다가올 심판 앞에서는 선조들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종족의 정체성이 전혀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실한 회개 외에는 닥쳐오는 진노를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회개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세례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 3:7-12; 눅 3:7-9, 16이하). 세례 요한은 오실 자에 대한 묘사하기를 그는 이사야의 여호와와 종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오실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점과 그것이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에스겔을 통한 예언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동터울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물로 정결케 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곧 그 자신의 영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겔 36:25이하절들). 이 약속은 요한복음 3:5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에의 부름에 경청하여 그에게 세례 받은 자들은 종말에 의로운 남은 자들로서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이 (눅 1:17)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막 1:4)라고 한 마가의 표현은 요한의 사역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표로 요한에게 세례 받은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눅 3:8). 곧 요한이 가르친 "의의 도" (마 21:32)를 좇아 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의의 도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가서 6:8)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궁핍한 자들과 음식과 옷을 나누어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이상 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도 정해진 급료로 만족하며, 폭력으로 돈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세리, 창기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받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 율법 선생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냉담했습니다 (눅 7:29 이하). 대부분의 요한의 청중들은 집으로 돌아가 오실 자를 기다렸으나, 그 중 일부는 남아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숫자가 바리새파와 후대 예수의 제자들과 맞먹는 광목할 만한 공동체를 이룬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과 금식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눅 11:1; 막 2:18).

요한의 사역의 최고 절정은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수세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요한의 손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했고, 그의 세례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자신의 사역을 위한 때가 왔음을 아셨고, 그 사역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기에 회개하고 세례 받는 자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는 요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을 요한의 사역과 관련시키셨습니다 (마 3:15). 예수님의 확신은 그가 강에서 올라오실 때 경험하셨던 것에 의해서 공표되었습니다 (막 1:9 이하절과 병행절들). 요한이 후에 옥중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 11:3, 눅 7:20) 하고 왜 물어보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오실 그 이로 알지 못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를 분명히 오실 분으로 인정하였으나, 그의 구금된 상황 하에서 그의 확신을 다시 확증하고 싶어함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인 구약 시대의 종막을 뜻함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24-28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